

오픈 2주년 맞은 신안1004몰

우수한 신안 농수특산물이 가득!

신안1004몰

shinan1004mall.kr



슬기로운 건강생활

신안1004몰 접속

회원가입 & 즐겨찾기 추가

상품 구입

맛있게 즐기기

리뷰 쓰고 적립금 받기

*50자 이상 포토리뷰 2,000원 / 포토리뷰 1,000원 / 텍스트 리뷰 500원



신안1004몰
바로가기



1004
신안군



지난 호 & 다운로드

2023 여름 Vol. 87

신안 소식 1004섬



연중특집 신안 만인보 12회

윤유빈 안혜경 조윤빈

유배화가 조희룡, 그리고 장도분교

정책특집 1004섬 신안, 예술섬으로 활짝

여름특집 여름 홍도의 세 가지 빛깔



신안
햇빛연금
소득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주민배당 현황

2023년 6월 현재

신안군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신안군-발전소가 공동 참여해 지분을 갖고, 발전 순이익의 30% 이상을 주민들에게 수익 배당금으로 지급합니다. 태양광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2021년부터 분기당 배당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배당금의 별칭이 ‘햇빛연금’입니다.

- 지난 6월 9일 임자면에 99MW 임자태양광발전소를 준공했다. 총사업비 1,850억 원 중 주민이 4%인 74억 원의 규모로 참여했다. 작년 10월 상업 운전을 개시하여 지난 4월 26일 임자도 주민 3,131명에게 분기별 1인당 40만~10만 원씩 첫 햇빛연금을 지급했다.
 - 지금까지 신안군민의 28%인 10,524명이 햇빛연금을 받고 있다. 앞으로 2023년 비금도 200MW, 2024년 증도·신의 등 약 400MW 태양광발전소가 추가로 건립되면, 신안군민의 46%인 17,236명이 햇빛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신재생에너지 관련 더 많은 뉴스는 44쪽 참고

현재 수익금 배당지역

지도읍 발전용량 100MW

주민 1인당 수익
2021년 2회 총 **52~22**만 원
2022년 4회 총 **104~44**만 원
조합원 3,300명 33개 마을
주민·군 협동조합 설립 2020.1.9.

안좌도 발전용량 96MW

주민 1인당 수익
2021년 4회 총 **144~48**만 원
2022년 4회 총 **144~48**만 원
조합원 2,329명 28개 마을
주민·군 협동조합 설립 2020.9.11.

자라도 발전용량 24MW

주민 1인당 수익
2021년 4회 총 **204~68**만 원
2022년 4회 총 **204~68**만 원
조합원 218명 2개 마을
주민·군 협동조합 설립 2019.9.6.

사옥도 발전용량 50MW

주민 1인당 수익
2022년 4회 총 **240~88**만 원
조합원 529명 2개 마을
주민·군 협동조합 설립 2020.1.17.

임자도 발전용량 99MW

주민 1인당 수익
2023년 연간 **160~40**만 원
전체 주민 3,214명
주민·군 협동조합 설립 2021.8.10.

사치도 발전용량 26MW

주민 1인당 수익(예상)
2024년 연간 **600~300**만 원
전체 주민 72명

장산도 발전용량 20MW

주민 1인당 수익(예상)
2024년 연간 **30~10**만 원
전체 주민 1,523명
주민·군 협동조합 설립 2021.11.19.

신의도 발전용량 250MW

주민 1인당 수익(예상)
2024년 연간 **408~136**만 원
전체 주민 1,516명

비금도 발전용량 300MW

주민 1인당 수익(예상)
2024년 연간 **204~68**만 원
전체 주민 3,516명
주민·군 협동조합 설립 2022.4.4.

증도 발전용량 130MW

주민 1인당 수익(예상)
2024년 연간 **444~148**만 원
전체 주민 1,460명

하의도 발전용량 30MW

주민 1인당 수익(예상)
2024년 연간 **42~14**만 원
전체 주민 1,681명
주민·군 협동조합 설립 2022.1.14.

2024년 4월부터 수익금 배당 예정

병풍도 발전용량 20MW

주민 1인당 수익(예상)
2026년 연간 **156~52**만 원
전체 주민 304명

고이도 발전용량 30MW

주민 1인당 수익(예상)
2026년 연간 **348~116**만 원
전체 주민 214명

마산도 발전용량 40MW

주민 1인당 수익(예상)
2030년 연간 **600~520**만 원
전체 주민 1,523명
주민·군 협동조합 설립 2021.11.19.

2026년 이후 수익금 배당 예정

2030년 이후 수익금 배당 예정

• 주민 수익금 배당 참여지분권리

	전입신고일~	1년~	2년~
만40세 이하	100%		
만50세 이하	50%	100%	
만50세 초과		50%	100%

• 신안 햇빛연금 문의 061-240-8774 (신안군 신재생에너지과)

신안 소식

1004섬

2023 여름 Vol. 87

발행 2023년 7월
 발행처 전라남도 신안군
 편집 기획홍보실
 주소 (58827)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전화 061)240-8360~5
 팩스 061)240-8575
 표지 홍도 유람선과 원추리,
 해녀촌 포차
 촬영 이해영



(재)신안군장학재단 후원 안내
 061-240-8777



신안군 귀농·귀어·귀촌 안내
 061-240-4126
shinan.go.kr/home/refarm

02 신안햇빛연금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주민배당 현황

05 2023 연중특집 신안 만인보②

하의도 해설하는 중학생 윤유빈
 신안사람들 초상화 그리는 화가 안혜경
 신안천일염센터 꾸리는 제과장 조윤빈
 임자도를 사랑한 유배화가 조희룡
 다시 문 열날 기다리는 장도분교

22 화보
 폐교의 변신

24 여름특집
 신안 교통관광지도

32 여름특집
 세 가지 빛깔, 여름 홍도

38 섬 이야기 ④섬과 농업
 척박한 섬에서 식량 생산하기

42 신안뉴스
 민선8기 1주년 보고회 外

50 정책특집
 1004섬 신안, 예술섬으로 활짝

58 군수편지
 ‘더 원 앤 온리’ 전략의 결실들

섬의 매력 알리는 ‘천사섬 알리미’ 되고 싶어요



신안 만인보 1

하의중학교 1학년 윤유빈 학생

큰바위 얼굴을 배경으로 선
 윤유빈 학생.



신안군 유튜브



신안군 페이스북



신안군 인스타그램



신안군 블로그



신안1004몰

하의중학교 1학년. 마을에서 유일한 중학생이다. 신안군이 추진한 그림책 <난 하의도에 산다> 만들기에 참여했다.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말동무를 하는 동네 귀염둥이다.

1년 사이에 가장 특별했던 일 하나를 꼽자면, ‘그림책 아일랜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다. 하의초등학교를 다니던 작년에 신안군이 진행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섬의 역사, 문화, 인물, 풍경을 그려 그림책을 만드는 프로그램이었다.

우리 섬에서는 10명이 같이 했다. 우리가 그린 그림이 <난 하의도에 산다>는 그림책으로 발간됐다. 갯벌에서 낙지 잡고 염전에서 소금을 만드는 모습, 김대중 대통령 생가, 모래구미 해수욕장, 내가 그린 ‘큰바위 얼굴’ 노을 풍경 등이 실렸다. 그림책을 받았을 때 정말 기뻐다. 묘한 자신감도 생겼다. 우리가 그리고 쓴 그림과 글이 책이 됐다니. 내가 작가라니!

초등학교 졸업을 기념하는 선물 같은 책이다. 두고두고 자랑거리로 삼을 생각이다. 압해도, 흑산도에서도 우리처럼 초등학교생들이 그림책을 만들었는데 광주, 서울, 고창, 신안에서 그림 전시회도 열었다. 섬을 알리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 것 같아 뿌듯하다.

우리 마을(어은리 1구)에는 또래 친구가 한 명도 없다. 중학생은 내가 유일하다. 학생이라곤 고등학생인 친누나와 나뿐이

다. 친구도, 놀러 갈 곳도 없어 심심할 때가 많다. 그래도 우체부 일을 하시는 아빠, 어르신들 돌봄 일을 하시는 엄마와 함께 목포에 나가면 즐겁다. 주말이면 섬 나들이도 하고 일요일에는 교회에 나가 예배를 본다. 자주 가는 곳은 집에서 가까운 큰바위 얼굴, 모래구미 해수욕장이다. 가끔 아빠와 함께 낚시하고, 자연산 미역을 따고 전복을 캔다.

그림책에 실린 큰바위 얼굴은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곳이다. 작은 섬 죽도를 ‘큰바위 얼굴’이라고 부른다. 이 섬은 신통방통하다. 사자였다가, 사람이었다가, 거북이가 된다. 오른쪽에서 보면 사자가 웅크리고 앉아 있는 형상이다. 다른 곳에서 보면 오뚝한 코, 짙은 눈썹, 귀가 영락 없는 사람 얼굴이다. 반대편에서 보면 거북이 모습을 하고 있다. 옛날에는 ‘사자바위’라고 부르며 큰 인물이 태어날 징조라고 여겼다고 한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큰바위 얼굴이라 불렸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 ‘큰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홀로 사시는 할머니 두 분께 말동무를 해드리기도 한다. 다른 가족이 섬을 떠나 먼

곳에 살고 있어 자주 만나지 못해 외로움을 느끼신다고 한다.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주말에 찾아뵙는다.

가끔은 미역, 전복, 민어 요리 등을 가져다드린다. “뭐 하러 이런 것을 다 갖고 왔어”라며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이 참 좋다. 내게 먹을 것이며 음료수를 주시고 귀여워 주신다. 친손자처럼 잘해 주신다. 할머니께서 들려주시는 하의도의 전설, 마을 이야기, 젊으셨을 때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재미있다. 간혹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다.

할머니 이야기를 자주, 오랫동안 듣고 싶은데 걱정이다. 한 분은 허리며 어깨며 몸 여러 군데가 아프시다. 혼자서는 거동

하기도 힘들어하시고, 보행기로 겨우 짧은 거리를 걸으실 수 있다. 마음이 아프다. 두 분 할머니, 우리 친할머니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다.

좋아하는 게임을 줄였다. 중학생이 되었으니, 더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다. 문화관광해설사처럼 신안 섬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일을 하고 싶어졌다. 그림책 그리기를 하면서 욕심이 생겼다. 앞으로 천사의 섬 신안에 대해 더 공부하려고 한다. 또 한 가지 바람이 있다. 목회자가 되는 것이다. 세상에 소금 같은 사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정리·사진 강성관

+


윤유빈이 소개하는 평화의 섬 하의도

하의도는 신라 말기에 한 선사가 연화부수(蓮花浮水) 지세라고 해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한자를 풀면 ‘연꽃(荷) 옷(衣)’을 두른 섬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으로도 유명하다. 그래서 하의도는 인동초의 섬, 평화의 섬으로도 불린다. 하의도와 목포 사이는 뱃길로 2시간가량이다. 하의도는 신의면 하태도와 삼도대교로 연결돼, 둘은 커다란 하나의 섬과 같다. 역사문화·관광지는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 큰바위 얼굴, 모래구미 해수욕장, 천사상 미술관, 하의3도(하의·상태·하태도) 농민운동기념관, 양세바위 등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 일대에는 ‘한반도 평화의 숲’ 만들기가 한창이다.



윤유빈 군이 그린 큰바위 얼굴.

읍동마을 쌍생점빵, 이삼단 여사님, 모두 그립습니다

 **신안 만인보 2** 신안 섬사람들 그리는 화가 안혜경 씨

충남 공주 자택의 작업실에도 신안사람들을 그린 작품이 가득.



경기도 안양 출생. 결혼 후 공주 산자락으로 귀촌. 신안 자은도 둔장마을미술관에 상주하며 섬마을에 매료됐다. 신안을 돌며 주민들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얼굴을 그리고 있다.

2020년 신안문화원이 주관하는 ‘작은미술관’ 사업 중에서 아트 커뮤니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 자은도 둔장마을미술관 리모델링을 앞두고 자은도에 머물며 작업하는 일이었다. 어느 날, 마을을 배회하다 정자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주민분들이 나를 관광하러 온 사람으로 아시더라. 워낙 컬러풀하고 화려한 옷을 즐겨 입는 나의 취향이 한몫했다.

어르신들께 얼굴을 그려 드리겠다고 하면 오해를 받았다. 그림 그려주고 돈을 받거나 물건을 파는 잡상인으로 말이다. 코로나19가 한창인 상황이었다. 낯선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돌아다니니까 의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다. 고구마 캐는 어르신 옆에 다짜고짜 앉아 말벗이 되었다. 커피 심부름하고, 밥도 얻어먹었다. 그렇게 한 분 한 분 알아가며 친해졌다. 도시에서 나고 자란 내가 느낀 섬마을은 어느 시골과는 달랐다. 자연경관이나 식생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섬사람들 삶이 특별하게 다가왔다. 아름다워도 살기에는 참으로 척박한 땅이었다. 그런 섬에서 치열하게 터전을 일군 이야기가 좀 더 듣고

싶었다.

자은도를 시작으로 신안 섬을 여러 곳 다녔다. 섬에 들어가면 보통 한 달 정도 상주한다. 주로 사람을 만나 인터뷰하고, 초상화로 남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 재료가 간단하면서도 운치가 있어 수묵화로 그린다. 얼굴 옆에는 인생을 압축한 한 편의 글을 덧붙인다. 섬에서 나올 때 주민들을 위한 작은 전시회를 열고 있다. 아트 커뮤니티 프로젝트가 종료된 후에도 나는 내 그림 작업을 계속하고 싶었다. 그래서 ‘화가의 여행가방’이라는 이름으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10년 전 남편과 충남 공주로 귀촌했다. 고즈넉한 산골 마을에 터를 잡고 작업에 집중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섬의 매력을 알게 된 이후 생활이 180도 바뀌었다. 섬에 한 달 정도 머물고 집으로 돌아와 몇 개월 쯤 휴식과 개인 작업을 한다. 그리고는 다시 섬으로 향한다. 처음에는 만류했던 남편도 내 열정에 두 손 두 발 들었다.

안좌도에서는 3개월을 머물렀기에 추억이 많다. 읍동마을 쌍생점빵이 그중 하나다. 할머니들의 ‘핫플’인 이곳에 나도

늘상 드나들었다. 그러면서 할머니들 얼굴을 많이 그렸다. 평생 누군가의 엄마, 무슨 맥으로 사느라 자신의 이름 한 번 불리지 못한 그분들의 삶을 잘 담아내고 싶었다.

그림에 할머니 성함도 적어 넣었는데, 거부감을 보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한평생 당신 이름을 존스럽고 싫다고 생각하신 것이다. 특이하고 예쁜 이름인데, 당당히 드러내셨으면 했다. 칭찬과 설득 작전이 효과가 있었다.

나를 각별하게 대해주신 할머니가 계시다. 김환기 화백의 고택 옆집에 사시던 이삼단 여사님. 안좌도에 머물 때 배가 고프면 할머니께 갔다. 항상 당신 혼자서 드시다가 함께 밥 먹는 날에는 냉장고 음식이

총출동했다. 섬에서 나와서도 계속 연락하고 지냈는데, 작년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 여전히 마음이 아프다.

그림에 주름 안 없었다고 혼내시던 병풍도 할머니, 돌아가신 할아버지 산소를 매일같이 찾으시는 선도 할머니, 초란도의 유일한 섬지기 이정식 씨... 가는 섬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특별한 이야기가 숨쉬고 있다.

섬사람 1,000명의 이야기를 남기고 싶다. 100명은 적고 10,000명은 많아 나를 절충해서 정한 숫자인데, '1004섬 신안'과도 맥이 통한다. 저마다의 귀한 이야기들이 내게 손짓하는 것 같다. 언제 오느냐고. 이제, 절반 왔다. *1004*

정리 김우리 사진 오종찬

소금과 빵의 만남, 기대하세요

 신안 만인보 3

‘신안천일염체험센터’와
‘카페 천일염’ 운영 맡은
조운빈 씨



‘카페 천일염’ 주방에서 방금 만든 빵과 함께.

+

‘화가의 여행가방’ 프로젝트

안혜경 작가는 2020년부터 신안의 섬들을 넘나들며 ‘화가의 여행가방’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작품의 주인공이 된 이들은 갓난아이부터 100살 넘는 어르신까지 500명 이상이다. 자은도에서 시작해 4년 동안 안좌도, 자라도, 병풍도, 선도, 암태도, 장산도, 흑산도 등 10개 이상의 섬에 머물렀다. 작업을 마치고 섬을 떠나기 전에는 작품들을 전시하고 주민들을 초대한다. 안 작가의 의미 있는 이 작업에 신안문화원도 활동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안 작가의 섬 유랑기는 2022년 1월 KBS 다큐ON ‘화가의 여행가방’으로 방영됐다.



안혜경 작가가 그린 초상화를 든 안좌도 읍동마을 사람들.

전북 김제 출신 40년 경력의 제빵사. 처가는 비금도. 빵 만들기부터 컨설팅, 강의까지 토
탈 전문가. 최근 비금도에 개관한 ‘신안천일염체험센터’와 ‘카페 천일염’의 운영을 맡았다.

비금도 신안천일염체험센터가 문을 열었다. 1층은 천일염 체험장, 2층은 전시장과 브런치 카페다. 나와 아내가 운영을 맡고 있다. 지난해 가을 신안군과 계약을 하고 수국축제 기간에 맞춰 센터를 오픈하기까지, 반년 넘게 부지런히 준비했다.

올해로 40년차 제과장이다. 서울 노보텔 앰버서더 호텔, 센트럴시티 제과부에서 제과장을 했고, 마지막으로 무주리조트 티롤호텔에서 근무했다. 젊은 날엔 배우기 위해 일본 동경제과학교, 프랑스 꼬르동 블루에서도 교육을 받았다.

새로운 도전의 땅으로 택한 비금도는 내 아내의 고향이다. 큰처형도 살고 계셔서 낯설지 않다. 두 아들에게는 비금도가 외갓집이다. 지난 겨울에 가족이 모두 이주했고, 큰아들은 비금중 2학년, 작은아들은 도초초 2학년으로 전학했다.

이 센터 부지를 처음 봤을 때 건물보다 건물 앞의 산이 더 눈에 들어왔다. 그간 휴양지 호텔에서 일했기 때문인지 난 멋진 경치에 주목한다. 낮은 언덕이지만 정말 멋스럽다. 이런 비경을 끼고 있다면 여기서 무얼 해도 할 수 있겠다 싶었다.

여기서 만들 빵은 모두 100% 핸드메이

드다. 외부에서 중간재료를 조달하지 않는다. 생지를 대량으로 만들어 냉동해두고,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꺼내 빵을 만든다. 이 방식이면 시간이 절약돼 천일염 체험장과 브런치 카페를 무리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원활한 작업을 위해 고품질 수입 기계들을 갖췄다. 좀 무리를 한 셈인데, 따지고 보면 그게 낫다. 기계가 고장나면 관련 기술자도 많지 않은데다 섬이라서 기술자를 부르기도 불편하니까.

소금빵, 대파빵, 육쪽마늘빵에 들어가는 재료는 마을에서 조달할 계획이다. 신안 천일염을 쓰고, 대파와 마늘은 농사 짓는 동네 어르신들로부터 공급을 받으려 한다. 비금 시금치도 접목할 생각이다. 스파게티, 피자 등도 준비하고 있다.

천일염 체험장 운영을 위해 소금 공부도 하고 있다. 방문객들이 체험을 하러 오면 잘 설명해주기 위해서, 누구나 알고 있을 법한데 스쳐 지나가는 것 중심으로 공부하고 있다. 참, 이 센터 건물이 소금 결정체 모양이라고 하더라.

작은 규모가 아닌데 모두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들을 해주시더라. 20년 넘게 베이커리 운영 컨설팅을 했다. 서울, 경

기, 강원도, 제주도, 중국, 말레이시아, 몽골에서 신규 베이커리 기술상무로 일했다. 메뉴 선정부터 생산까지 베이커리 운영에 대한 모든 매뉴얼을 갖춰주는 일이다. 베이징의 어느 백화점 베이커리에서는 현지인 300명을 지휘하며 일을 했다. 물론 현장은 매번 다르니, 각오를 하고 있다.

고향은 전북 김제다. 중학교 때는 운동을 했다. 그 시절은 돈이 없어서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업료도 면제받고, 운동화랑 체육복도 받았다. 필드하키와 핸드볼 선수를 하다가, 당시 핸드볼 팀이 있는 김제농고로 진학을 했다. 농고에서 전공과를 택해야 하는데 ‘식품공학’이 눈에 띄었다. ‘식품’이라니까 여기 가면 굶지는 않겠지 싶어서 지원했다. 친구들이랑 학

교 실험실에서 포도주만 엄청 흠쳐 먹었다.(웃음)

그때가 1980년대 초반이었다. 선생님이 ‘앞으로 빵에 비전이 있으니까 빵을 배워라’라고 하셨다. 그래서 식품가공, 농산물가공, 제과, 제빵 등 자격증 4개를 땀다. 실습 겸 취업을 나간 곳이 부산에 있는 기린식품 밀탑제과였다. 나의 제과 인생이 시작됐다.

그간 빵 만들고 기술 컨설팅도 하며 참 바쁘게 살았다. 인천 제과학원, 대학 제과제빵학과에서 15년간 강의도 했다. 강의를 하면서 가르치는 재미도 느꼈다. 여기서도 기회가 된다면 제과제빵을 알려주고 싶다. 공간이 크니까 교육공간으로도 써보면 좋겠다. *2024*

정리 이혜영 사진 오종찬



신안천일염체험센터 & 카페 천일염

비금도 염전의 문화, 체험, 음식이 결합된 곳이다. 위치는 비금면 도고리 175-41. 비금도 가산항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다. 1층은 천일염 체험장, 2층은 전시장과 브런치 카페 ‘카페 천일염’으로 구성된다. 신안 농수산물을 활용한 빵, 천일염 커피 등을 제공하고, 천일염 가공제품과 특산물을 판매한다. 체험센터가 위치한 곳은 옛 대동염전이다.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근대 문화유산이다.




신안천일염체험센터 & 카페 천일염 전경.



임자도 이흑암리에 복원된 조희룡의 적거지 만구음관.

임자삼절을 노래한 유배화가

 **신안 만인보 4** 조선 대표 화가 조희룡(1789~1866)

조희룡(1789~1866)은 조선 후기의 대표 문인화가이다. 말년에 임자도에서 3년간 유배 생활을 했다. 임자도의 주민들과 교류하며 그가 남긴 섬세한 기록을 되돌아본다.

최근 임자도가 홍매화의 섬으로 가꾸지고 있다. 이곳에서 유배 생활을 했던 화가 조희룡과의 인연이 바탕이 되었다. 조희룡(趙熙龍)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화

가로 시서화(詩書畵)에 모두 능숙했다. 조선문인화의 세계를 창출해낸 최고의 화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매화를 가장 잘 그렸다. 대표작으로 ‘홍매도대련’, ‘매화서옥도’ 등이 있다.

조희룡은 당쟁에 휘말려 1851년부터 1853년까지 임자도에서 유배 생활을 했다. 실제 머물렀던 장소는 현 신안 임자도의 이흑암리이다. 유배 시절 자신이 살던 작은 집을 ‘만구음관(萬鷗吟館)’이라 칭했다. 수많은 갈매기의 우짖는 소리가 들린

다는 뜻이다.

용의 승천 이야기 녹인 ‘용매도’ 임자도의 보물 기록한 ‘임자삼절’

조희룡에게 임자도 유배 생활은 예술가로서 한층 성숙해지는 계기였다. 조희룡이 더욱 주목되는 이유는 그가 섬 주민들의 토속문화에 대한 애정이 많았기 때문이다. 섬 주민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경청하여 작품에 반영하거나 각종 기록에 남겼다. 작품 활동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용매도’의 탄생 배경이다. 조희룡의 가장 뛰어난 분야는 ‘매화도’였는데, 유배 시절 마치 용이 승천하는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용매도(龍梅圖)’로 한층 발전해갔다.

그는 주민들이 들려주는, 용이 승천하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토대로 ‘용매도’를 그렸다. 매화의 줄기가 용이 되어 하늘로 비상하고 있는 느낌을 표현했다. 용이 승천하는 모습을 봤다는 주민의 이야기를 과장된 거짓이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작품에 담아낸 것이다. 임자도 이흑암리 어머리해변에는 조희룡이 용매도를 그리게 된 이야기가 전해오는 ‘용난굴’이 실제로 남아 있다.

그는 유배 시절 그림만 그린 것이 아니라 여러 저서도 남겼다. 산문집 『화구암난묵(畵鷗庵譚墨)』, 시집 『우해악암고(又海嶽庵稿)』, 편지글 『수경재해외적독(壽鏡齋海



홍매화 피는 초봄의 만구음관. ©오종찬

外赤牘』, 그림이론서 『한와헌제화잡존(漢瓦軒題畵雜存)』을 집필하였다. 조희룡 기록의 장점은 임자도 섬 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상세하게 남아 있다는 점이다.

『화구암난묵』에서는 임자도 유배 시절 얻은 세 가지 보물을 ‘임자삼절(三絶)’이라 언급하였다. 삼절은 ‘작도의 가을새우’, ‘흑석촌의 모과’, ‘수문동(현 은동)의 밝은 달’을 칭한다. 작도는 임자도 전장포 남쪽 바다에 있는 작은 섬인데 새우잡이로 유명한 곳이다. 조선시대부터 전장포가 새우로 유명했음을 알 수 있다. 흑석촌은 현 임자도 이흑암리의 옛 지명이다. 당시에는 모과가 많았던 모양이다. 유배인의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되었다. 수문동은 현 은동을 칭한다. 이곳에는 은동해수욕장이 있다. 조희룡은 “바다 가운데 수문

동과 같은 명승이 있을지 몰랐다. 내 평생 달구경 중 최고”라고 극찬하였다.

또한 조희룡은 자신이 체험했거나 전해들은 신기한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겼다. 섬 민속 중 하나인 ‘도깨비불 구경 모습’, ‘바다 위의 신기루’, ‘인어 이야기’가 대표적이다.

임자도 사람들에게는 한밤중에 갯벌 위를 떠도는 도깨비불을 구경하는 풍속이 있었다. 조희룡이 거쳐하는 집 뒤쪽 산기슭 아래에 한 포구가 있었는데, 바닷물이 빠져나간 뒤 십여 리에 걸친 뽕밭 위로 도

깨비불이 푸른빛을 내면서 땅 가득히 쉬쉬 소리를 내며 오가곤 했다. 이 도깨비불은 비바람이 치더라도 없어지지 않는데 해마다 설달에 가장 성했다. 사람들은 이것을 구경하려고 한밤중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등불을 감추고 보는데, 조희룡은 “등불이 보이면 곧 사라진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구전으로 전해오는 도깨비불 구경에 대한 상세한 묘사로 사료적 가치가 크다. 섬 주민들에게 이 도깨비불이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구경하는 민간 풍속이었음을 보여준다.

바다 위의 신기루에 대한 기록도 남아 있다. 임자도 사람들이 평소에 보는 신기루는 봄여름이 바뀌는 시기에 섬 밖 먼바다 가운데에서 주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왕왕 누각이나 초목의 형상이 바다 위에 나타났다가 잠깐 사이에 변하여 사라진다고 했다. 조희룡은 이것을 ‘해시’라 하는데, “옛사람들은 신기(蜃氣)가 만든 것이라고 말한다”고 기록했다. 전설에 자주 등장하는 신기루는 바다 위에 건립된 도시라는 뜻으로 일명 ‘해시’라고 불리는데, 당시 섬 주민들이 인식하는 신기루에 대한 내용이 조희룡의 기록을 통해 전해오고 있다.

임자도 사람들에게 전해들은 섬 고유의 풍속 중 그 백미는 임자도 인어(人魚) 이야기이다. 어떤 어부가 투망으로 고기를 잡다가 한 부인을 건져 올렸는데, 피부는 희고 윤기나며 눈동자는 반짝반짝한데 머리를 풀어 헤친 채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있는 것이 사람과 조금의 차이도 없었다. 어부는 놀랍고 기이하여 물속에 다시 던져 주니, 얼굴을 수면에 드러낸 채 수심보를 가다가 곧 물속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조희룡은 “이것이 과연 교어(鮫魚 인어)라는 것인가? 지금 어부는 그 보이는 바를 말하였을 뿐 근거 없이 꾸며낼 줄 모르는 사람이니 이 이야기가 맞지 않겠는가? 아울러 우선 그대로 기록하여 박식한 사

람을 기다린다”며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기록으로 남겨놓았다.

섬 토속문화 섬세히 기록 흔치 않은 유배 기록물 남겨

섬사람들의 토속문화에 대한 이러한 기록을 통해 조희룡의 성향을 엿볼 수 있다. 그가 평소 친하게 지내는 섬 주민들은 하나같이 순박하고 거짓이 없는 이들이었다. 때문에, 이야기가 다소 황당한 느낌이 들더라도 말하는 이의 평소 성품으로 보아 거짓이 아닐 것이라는 믿음을 지녔다. 조희룡은 섬사람들의 토속문화를 천박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신기하게 생각했고, 후세에 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임자도 이흑암리에는 조희룡의 적거지인 만구음관이 복원되어 있고, 대광해수욕장 입구에는 조희룡미술관이 조성되어 있다. 조희룡이 특별한 이유는 뛰어난 화가였다는 점 외에도 섬 문화에 대한 매우 소중한 기록을 남겼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토속문화에 대한 기록은 다른 유배인의 기록에서는 쉽게 찾을 수 없는 내용이다. 조희룡이 남긴 섬 토속문화에 대한 이야기 자원들이 관광자원이나 특산품 판매에도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해본다. [004](#)

글·사진 최성환(목포대 사학과·도서문화연구원 교수)

참고자료 『조희룡전집 1-6』, 한길아트, 1999.


1 조희룡의 대표작 ‘홍매대련’.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2 임자도 대광해변 입구에 있는 조희룡미술관 전경. 3 조희룡미술관 내부. 조희룡의 매화그림과 임자삼절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다.



2008년 여름, 장도분교 운동장에서
축구 삼매경인 어린이들 ©오종찬

장도는 흑산도 서쪽에 있는 작은 섬.
섬 산위에 있는 ‘장도습지’로 유명하
다. 1932년 흑산도의 본교 개교에 이
어 1955년 흑산초 장도분교가 개교했
다. 2022년 3월부터 휴교 상태다.

“애들아 잘 지내니?” 휴교가 들려주는 옛 이야기

 신안 민안보 5 장도분교

안녕. 나는 장도분교다. 장도는 흑산도 서
쪽에 이웃한 섬이다. 선착장 쪽에 있는 마
을 하나가 전부인 작은 섬이지만 나를 학
계에서는 유명하다. 섬 산등성이에 평평
한 습지가 있는데, 이게 지질이나 생물학
적으로 가치가 크다고 한다.

나는 작년 봄부터 휴교에 들어갔다. 3년
간 입학생이나 전학생이 없으면 폐교 수
순을 밟게 된다. 1955년에 개교를 했으니
까, 나는 66년을 일하고 은퇴 준비를 하게
됐다. 우리 세계에서 이 정도 세월은 조기
퇴직인 셈이다.

딱히 나만 겪는 일은 아니라서 그리 의
기소침할 일도 아니다. 나의 본교인 흑산
초등학교도 아이들이 적어 늘 위기를 겪
고 있으니. 섬뿐인가. 올초에 서울 한복판
의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도 문을 닫았던
소식을 들었다.

그럼에도 난 어쩔 수 없이 곧잘 울적해
진다. 아이들이 내 품에서 웃고 뛰고 떠들
던 시절을 자꾸 회상한다. 2008년에 찍힌
이 사진도 옛그제 같다. 아이들은 축구를
하면서 놀 공이 바다로 떨어질까 걱정을



영화 <섬개구리 만세>(1973) 포스터.

했었다. 내가 바다에 딱 붙어 있는 학교라서 그렇다. 게다가 흑산군도 바다는 깊고 푸르다. 육지처럼 물자가 풍부한 것도 아니니, 축구공을 아끼던 아이들 마음을 십분 이해한다.

그럼에도 나는 장난을 많이 쳤다. 누군가 공을 힘차게 차면 그 순간에 맞춰 나도 몸을 힘차게 떨어주었다. 공이 하늘로 높이 솟구칠수록 아이들은 사색이 됐다. 난 왜 그리 짓궂었을까. 텅 빈 학교가 되고 보니 별걸 다 반성하고 있다.

2020년쯤에는 전교생이 두 명이었다. 5학년, 1학년 남자애들이었는데, 둘은 형제여서 특히 기억에 남는다. 형제는 ‘학급

회의’를 열어서 유정란 나눔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형제가 집에서 키운 닭의 달걀을 주민들에게 나눠주기로 한 것이다. 그간 마을의 도움만 받는 어린 학생이었으니, 이제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되고 싶다고 했다. 기특한 녀석들이었다.

사람 누구에게나 한때 화려했던 만개의 시절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저마다 화양연화가 있다. 내 친구 안좌도 사치분교는 일찌감치 퇴직하고, 지금은 마을경로당이랑 농기계 보관창고로 일하고 있다. 그 친구의 화양연화는 정말 눈이 부시다.

1973년에 <섬개구리 만세>라는 영화가 개봉했다. 부부 교사가 선착장도 없는 작은 섬에 발령을 받아서 왔는데, 어느 날 아이들이 짚단 같은 것을 묶어서 갯벌에서 공놀이를 하는 모습을 본다. 교사 부부는 섬마을 아이들과 함께 농구부를 만든다. 가난한 작은 섬에서 농구화도 농구코트도 없이 시작한 농구부가 겪었을 시련은 안 봐도 비디오다. 그 팀은 불굴의 노력 끝에 제1회 전국 스포츠 소년대회 전남 예선에서 우승을 하고, 서울 본선에서 준우승을 하는 기쁨을 토한다. 섬마을 농구부는 전 국민에게 희망의 상징이 된다.

이 영화는 당시 크게 흥행을 했다. 부부 교사를 연기한 배우도 무려 김영애, 신일룡이다. 영화는 제10회 청룡영화상에서 상을 5개나 받았다. 베를린 영화제에도

출품됐으니 비유하자면 한류의 시조라고나 할까. 뜬금없이 무슨 영화 얘기냐고? <섬개구리 만세>는 바로 안좌도 사치분교 아이들의 이야기이다!

난 사치분교처럼 큰 주목을 끌어본 적은 없지만, 돌이켜보면 아이들과 함께한 매순간이 봄날이었다. 진짜 폐교가 되는 것일까. 그 사이 새로운 아이가 섬으로 이사를 올 일은 없을까. 나는 어떠한 인생 2막을 살게 될까.

신안군 복지정책 덕분에 노후가 크게 걱정되진 않는다. 신안군은 학교를 보존하고 폐교를 활용하는 데 ‘진심’이니까. 그간 폐교 선배들이 멋지게 살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봤다. 장산도 동분교는 화이트 뮤지엄이 됐고, 비금도 대광분교는 이세돌바둑박물관이 됐다. 특히 대광분교의 어깨는 요즘 힘이 잔뜩 들어있다. 자기 줄

업생인 이세돌이 세계 최고의 바둑기사가 됐으니까. 대광분교는 운동장에 세워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 조형물을 애지중지한다. 너무 빠기는 통에 얄미울 정도다.

선배들은 박물관도 하고 미술관도 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그래도 난 아이들을 돌보고 놀려 먹는 게 제일 즐겁다. 되도록 퇴직을 늦게 하고 싶다. 학교가 다시 문을 열었으면 좋겠다. 너무 낙관적이라고? 내 희망의 근거는 바로 안좌도 자라분교다. 자라분교는 2020년 휴교에 들어갔다가 올해 3월, 극적으로 폐교이행기간이 연장됐다. 주민등록상 취학가능 아동수가 15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신안햇빛연금(2-3쪽 참고) 덕분에 주민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 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004*

글 이혜영



신안군의 폐교 활용 정책

인구 감소로 인한 휴교와 폐교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폐교가 된 학교는 민간에 매각되거나 그냥 방치되기 쉽다. 신안군은 관내 폐교를 적극 매입해 홍물로 방치되는 것을 막고, 지역공동체의 새로운 자산이 되게 하고 있다. 민선4기 이후 42개소를 사들여 이중 25개소를 주민을 위한 복지공간, 문화공간 등으로 변신시켰다. 특히 신안군은 각 섬마다 개성 있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건립하는 ‘1섬 1뮤지엄’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주로 폐교 공간이 활용된다. 신안군은 폐교 전 단계인 휴교(3년) 중인 학교에도 예산을 편성해 건물 상태를 관리하고 있다. (다음 쪽에 관련 화보)

폐교의 변신

신안의 폐교들은 새로운 공간으로 변신하고 있다. 그 중 문화공간이 되어 주민과 관광객을 만나고 있는 곳들 일부를 소개한다.

폐교의 변신

3 고이도센터(옛 고이분교). 4 에로스서각박물관(옛 암태동초). 5 이세돌바둑박물관(옛 비금대광초). 6 세계화석광물박물관(옛 안창초).



추억의 교실 1:2 에로스서각박물관 입구에 전시된 암태동초 시절.



교실의 변신 7 세계화석광물박물관. 8 장산화이트뮤지엄. 9 이세돌바둑박물관. 10 주섬주섬청년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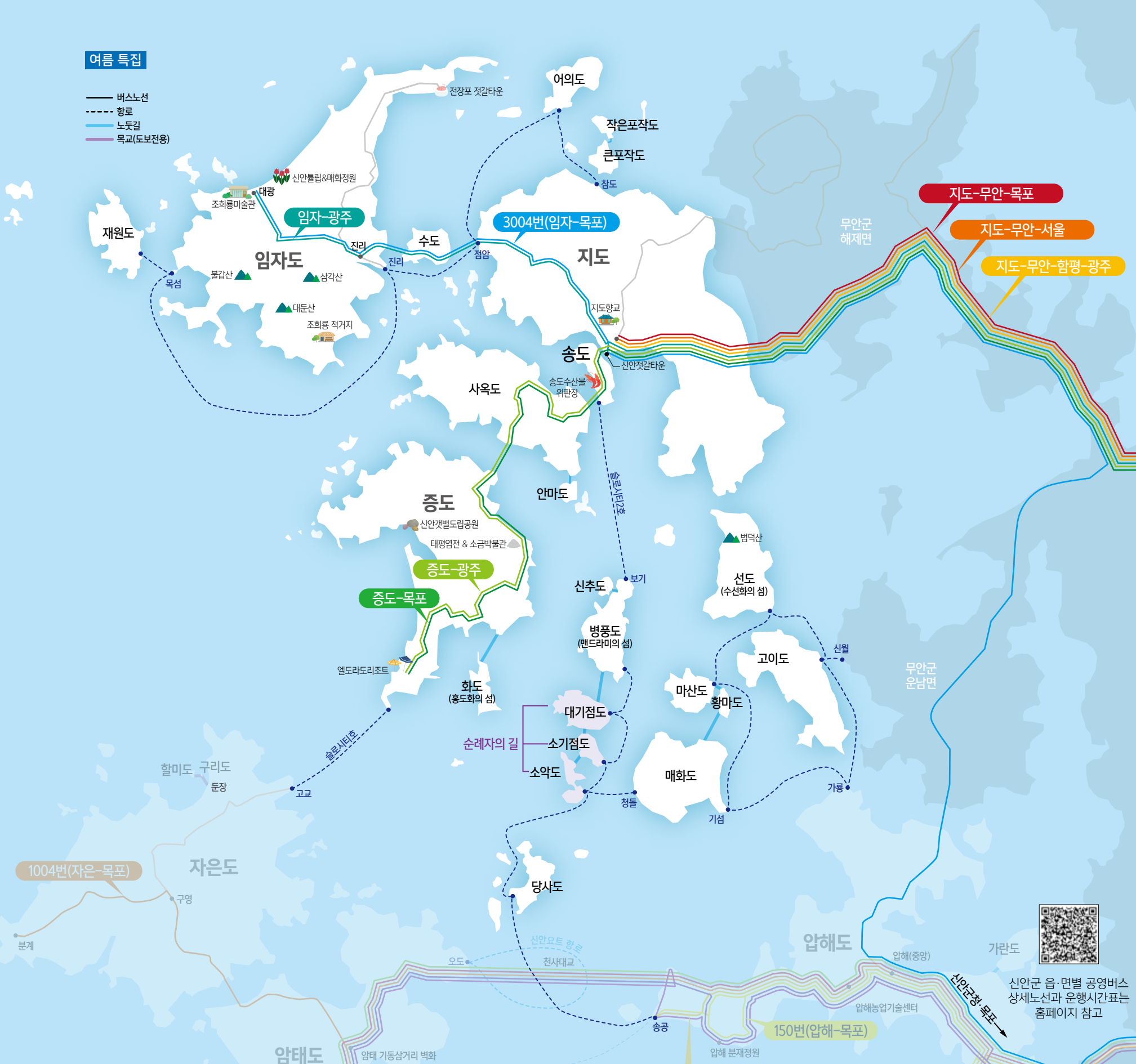


개소식 11 주섬주섬청년마을(옛 팔금분교). 12 매화도센터(옛 매화분교).

복도의 변신 13 장산화이트뮤지엄(옛 장산동분교). 14 세계화석광물박물관.



여름 특집



신안에서 놀자!

신안 교통관광지도

북부권

자동차 자동차로 지도읍을 경유해 임자도나 증도 방면으로 간다.

배 증도 왕바위선착장에서 슬로시티호(신안군 공영여객선, 요금 1천 원, 차량 선적 가능)를 타고 자은도로 건너간다. 북부권 작은 섬들을 오가는 선착장은 압해도의 송공항과 가룡항이 중심이다. 지도읍 송도항에서도 병풍도로 갈 수 있다. 무안 신월항은 아직 공사 중이라 이용하기 어렵다.

노들길 기점·소악도 순례자의 길은 노두로 연결되어 있다. 국내 최장 노들길이다. 노두는 밀물 최대시각 안팎에 바닷물에 잠긴다. 물때에 맞춰 걸으려면 당일보다는 1박2일 코스가 좋다. 증도-화도 노들길 역시 밀물 최대 시각 안팎을 피해서 걸으면 된다.

신안민어축제 7월말~8월초 임자도 대광해변 일대



기점·소악도 순례자의 길



수선화의 섬 선도

신안군 읍·면별 공영버스
상세노선과 운행시간표는
홈페이지 참고

여름 특징

- 버스노선
- 항로
- 노돛길
- 목교(도보전용)



중부권

자동차 천사대교를 통해 중부권으로 간다. 중부권 주요 섬들은 다리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생활권이다. 압태 남강항은 중부권의 육상·해상교통 거점이다. 군내버스(자은 방면, 안좌 방면), 시외버스(목포, 광주, 서울), 퍼플섬으로 가는 전용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배 남강항에서 비금·도초·흑산으로 가는 배를, 안좌 북호항에서 하의·장산으로 가는 배를 이용한다. 자은도 고교선착장에서 북부 증도로 가는 슬로시티호를 탈 수 있다.

목교 퍼플섬은 박지도와 반월도로 구성되고, 안좌·박지·반월이 모두 도보 전용 목교로 연결되어 있다. 걸어서 오가면 된다. 퍼플섬은 유엔세계관광기구가 선정한 제1회 세계 최우수관광마을이다. 압해읍 가란도 역시 도보 전용 목교로 연결된 작은 섬으로 해변길 산책코스가 좋다. 자은도 북부 무한의 다리는 할미도와 구리도를 잇는 도보용 목교로, 무인도를 걷는 정취가 좋다.

1004섬 시티투어 버스

매주 토일 운행

광주 오전 9:00 출발. 문의 보훈산업 010-6717-5789

목포 오전 9:30 출발. 문의 비전투어 061-285-2853



퍼플섬

여름 특집

- 버스노선
- 항로
- 노돛길
- 목교(도보전용)



흑산권

배 목포항에서 쾌속선을 타면 도초를 거쳐 흑산도로 간다. 2시간 소요. 흑산도에서 30분을 더 가면 홍도다. 쾌속선에 따라 흑산도 주변의 작은 섬을 경유한다. 목포항에서 만재도-가거도를 바로 잇는 항로도 있다.

유람선 홍도 유람선은 2시간10분가량.(관련글32-37쪽)

기타 정보

물때 체크하는 법 노두는 만조 때 물에 잠기므로 건널 수 없다. 만조 시간대를 알기 위해서는 물때를 알려주는 앱을 다운로드 받아 확인하면 편리하다. 앱 ‘물때와 날씨’ 다운로드 > 가거도 하는 섬 검색 > 최고 수위 시각 전후 30분 정도를 피해서 노두 통행.

신안군 디지털 관광주민증으로 할인 받기 국내여행 전용 모바일앱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신안군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는다. 일종의 명예주민증이다. QR코드를 활용해 관광지 입장권, 숙박, 음식, 체험 등 각종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할인 예시 증도 엘도라도 리조트 20~60%, 자은도 라마다호텔프라자&씨원 리조트 10~30%, 암태 오도선착장 1004섬 요트 투어 20% 할인 등



세 가지 빛깔, 여름 홍도

홍도 여행

홍도는 목포항에서 쾌속선을 타고 2시간30분. 흑산도에서도 뱃길로 30분을 더 가야 닿는 섬이다. 접근성이 수월하진 않지만 홍도는 일찍부터 대한민국 섬관광 1번지였다. 광활하고 푸른 바다 위에 박힌 보석 같은 홍도의 매력 때문이다. 홍도의 대표 즐길 거리 세 가지를 알아보자.

홍도항과 1구마을. ©신병문



홍도 여행의 백미

홍도 유람선

신안관광 가이드북의 홍도편 첫 줄은 '홍도에서 유람선을 타지 않는다면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지 않는 것과 같다'로 시작한다. 유람선은 홍도 여행의 필수코스이자 백미다. 섬 전체가 천연보호구역인 홍도의 해안 비경을 따라 천천히 돌아보는 선상 여행이다.

유람선은 1구마을 홍도항에서 하루 두 차례 출발하고, 섬을 한 바퀴 돌아 2시간 후에 되돌아온다. 바위 절경들은 온갖 상상력을 발휘하는 재미를 준다. 유람선은 기암절벽 사이로 배를 대주기도 한다. 홍도의 비경을 최대한 가까이서 음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유람선은 북쪽 2구마을 인근에 당도해 작은 고깃배와 접선을 한다. 주민들이 갓 잡은 생선들을 회로 썰어 제공한다. 농어, 우럭 등 한 접시에 3만 원 선인데, 선상에서 먹는 싱싱한 회의 맛이 일품이다. 홍도 원추리축제(올해 7월 7일~16일) 기간에는 유람선도 2구마을에 30분가량 정박한다. 원추리가 만개한 산책로를 걷는 시간을 주는 것.

+ 유람선 이용

- 매일 오전 7시30분, 정오 12시30분 출발. 소요시간 2시간10분. 항해거리 20.8km. 이용요금 성인 기준 25,000원. 홍도 숙소에서 예약하면 할인을 받는다.
- 목포-홍도 여객선 시간 기준으로 7시50분 목포 출발, 10시30분 홍도 도착, 점심 먹고 12시30분 유람선 이용 동선 추천
- 원추리축제 기간에는 유람선 코스에 2구마을 원추리정원 산책 포함 (축제는 매년 7월 중순 약 2주. 정확한 일정은 신안군 홈페이지 참고)



홍도항에서 출발하는 유람선.

유람선의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



유람선에서 보는 바위 비경들.



2구마을에서 내려 걷는 원추리정원.
©신병문





1구마울과 2구마울 원추리정원의 7월.

7월 홍도는 원추리 세상

홍도 원추리

홍도 원추리 축제 7.7.~7.16.

홍도의 7월은 원추리 세상이다. 홍도 원추리는 육지와 달리 꽃이 더 크고 색이 진하다. 홍도 고유종이라서 학명도 다르다. 1구와 2구 마을 주변에 각각 원추리정원이 조성돼 있는데, 2구마을의 코스가 더 길다. 2구마을에서 홍도 등대까지 30여 분. 원추리에 맞춰 노랑으로 칠한 마을 지붕들도 산뜻한 분위기를 더한다.

홍도 원추리는 오래전부터 섬 전역에 자생했고, 주민 생활에 여러모로 유용했다. 옛날 홍도 사람들은 원추리 줄기로 광주리와 같은 생활 공예품을 만들고, 띠집 지붕을 엮는 줄도 만들었다. 보릿고개 때는 싹과 잎을 나물로 무쳐 먹고, 뿌리에서 전분을 채취해 먹었다.

신안군은 '사계절 꽃피는 섬정원화' 사업을 펼치면서 섬마다 대표 꽃과 정원을 꾸리고 있는데, 홍도의 대표 꽃은 당연히 원추리가 됐다. 2018년 가을을 시작으로 홍도 주민들은 매년 원추리정원을 추가로 조성하고 있다. 배고팠던 옛 시절, 유용한 식량과 물자가 되어주었던 홍도 원추리. 지금은 홍도의 미래를 밝히는 새로운 관광자원이 되고 있다.




+ 원추리정원 현황 (2023년 현재)

- 정원 규모 총 8,433㎡(약 2,550평)
- 1구마을에 있는 홍도항에서 2구마을로 가는 배를 타면 된다. 마을에서 민박을 이용할 수 있다. 1구마을에서 산길 4km를 걸어 도착해도 된다.

방파제에서 낭만 한 접시

해녀촌 포차

저녁이 되면 홍도여객선터미널 옆 방파제 위에 해산물을 파는 포차 10여 곳이 불을 밝힌다. 1구마을 해녀들이 운영하는 포차로, 직접 잡은 해삼, 전복, 소라, 홍합 등을 판매하고 있다. 방파제에서 싱싱한 해산물을 안주 삼아 마시는 소주 한 잔은 천상의 즐거움! 홍도 해녀들은 배를 타고 홍도 주변을 돌면서 물질을 한다. 홍도 1구에는 현재 해녀가 모두 7명. 예전에는 열댓 명 되었는데 지금은 고령이 되어 그만 두거나 관광업으로 전환했다. 해녀촌 포차는 물질을 하지 않는 한겨울만 빼고 연중 저녁마다 운영한다. 저녁 가로등이 빛나면 관광객들이 노천 테이블을 가득 메우고, 어둠 속에 홍도 기암절벽이 신비롭게 다가온다. 흑산군도 바다의 홍합은 매우 크다. 이곳 말로는 '섭'이라 부른다. 육질도 쫄깃하고 향도 진하다. 홍합껍질은 국자처럼 사용한다. 해녀 주인장의 부군이 방금 잡은 문어를 가져온다. 문어, 홍합, 전복, 뽕소라가 골고루 들어간 해물라면은 해녀촌 포차의 밤을 장식하는 마지막 메뉴로 으뜸이다. 

글·사진 이해영



+ 해녀촌 포차 이용

- 위치는 홍도여객선터미널 옆 방파제
- 각 포차가 초입 입지의 이점을 고루 누리게끔, 10여 개의 포차가 정기적으로 서로 위치를 바꾼다.



해녀촌 포차의 정취.

척박한 섬에서 식량 생산하기

④ 섬과 농업

소재별로 섬 문화를 알아보는 연재입니다. 전라남도가 2020년 발간한 책 <섬을 읽는 15가지 열쇠> 중에서 열 가지를 요약 정리해 10회 연재하고, 매회 신안 사례를 추가로 소개합니다. 연재 순서는 섬과 바람-물-산-농업-어업-무인도-음식-공동체-유배-바닷길입니다.

8개의 작은 섬이 간척으로 이어져 하나의 섬이 된 팔금도.



땅이 좁고 물 확보가 어려운 섬에서 농사를 짓는 일은 쉽지 않다. 하지만 수산물만으로는 생존이 어려워, 식량 확보를 위한 농업은 꼭 필요했다. 많은 섬들이 반농반어(半農半漁)의 경제생활을 영위해온 이유이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하다. 서남해안 섬사람들은 갯벌에 독을 쌓아 땅을 만들었다. 확보한 땅은 염전으로 조성하거나 벼농사를 위한 농경지로 개간했다. 고된 작업이었다. 남성들은 지게에 돌을 져 운반하고, 여성들은 소쿠리나 망태에 담아 머리에 이어 날랐다. 갯벌이 발달하지 않은 섬에서는 산비탈을 깎아 층층이 만든 ‘계단식 논’의 형태로 경작지를 확보했다. 경남 남해의 ‘다랭이 논’, 전남의 경우 청산도의 ‘구들장 논’이 대표적이다.

독을 쌓아놓아도 조수에 의해 무너지는 일이

다반사였다. 물의 흐름을 끄는 일은 쉽지 않았다. 무너지면 다시 쌓기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간척지를 만들었다. 되도록 구부러진 활모양으로 독의 형태를 잡고, 비스듬히 쌓아올려 조수의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땅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속제는 더 남아 있다. 간척지 땅은 염분 농도가 매우 높다. 이른바 ‘간끼’를 빼내야 경작이 가능한데, 많게는 10년이 걸린다. 어느 정도 토양 개량이 이루어진 후에는 염에 강한 보리, 밀 등의 작물을 심고, 점차 벼농사에 적합한 숙답화(熟沓化) 과정을 거친다.

간척사업이 진행되면서 많은 섬들이 연결되었다. 가까이에 있는 작은 섬들은 물론, 대규모 토목작업이 가능해지면서 ‘큰 섬’들이 하나로 묶이기도 했다. 예컨대 안좌도는 본래 안창도와 기좌도 두 섬으로 분리되어 있었으나 간척으로 하나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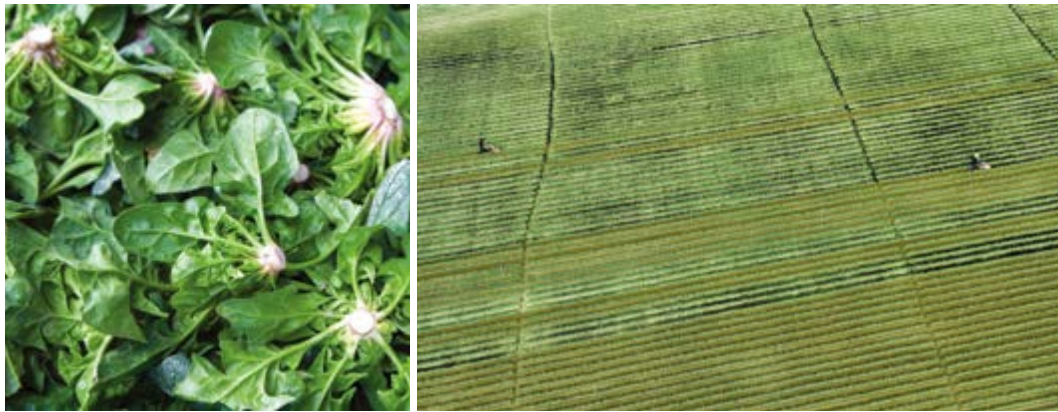
오늘날엔 경관자원이 된 홍도 원추리.



보릿고개를 건디게 해준 구황작물

먼 바다 섬은 갯벌이 발달하지 않은데다 물 확보도 어려워 논농사가 불가능했다. 야산을 개간한 밭이 농토의 전부였다. 제사나 명절이 아니면 쌀밥은 구경하기도 어려웠다. 늘 굶주렸지만, 식량 사정이 가장 어려웠던 ‘보릿고개’(양력 4월~6월) 시기에는 말 그대로 초근목피(草根木皮)로 연명해야 했다.

이때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영양분을 제공해 주는 먹거리를 구황식품이라고 한다. 거친 땅에서도 잘 자라는 고구마와 감자가



명품 시금치로 사랑받는 비금도의 섬초. 임자도의 광활한 대파밭.

그 역할을 했다. 특히 섬에서는, 그곳에서만 자라는 특유의 작물이 구황식품 역할을 했다. 홍도의 원추리가 대표적이다. 봄에는 어린 싹을 따서 나물로 먹고, 여름이면 꽃봉오리로 찜, 무침, 조림, 전 등으로 요리해 먹었다. 식량을 얻는 또 다른 방법은 섬의 특산물과 육지의 쌀을 바꾸는 물물교환이다. 주로 부녀자들이 2~3명씩 조를 짜 행상에 나섰다. 섬에서 생산한 김이나 미역을 전국 각지로 이고 다니면서 쌀이나 돈으로 바꿨다.

점점 부각되는 섬 농업

최근에는 섬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산물이 인기를 얻고 있다. 갯벌 토양에서 해풍을 맞고 자란 농산물이 육지의 농산물보다 품질이 우수하다고 알려지면서 소비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 신안 임자도 대파와 비금·도초도의 시금치 등이 대표적이다.

임자도는 모래땅이어서 뜨겁다. 그 열기 속에

서 자란 겨울대파는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다. 임자도 겨울대파는 길이가 60cm 정도로, 전국 겨울대파 중 가장 길다. 또 무기질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수분과 나트륨 함량이 적고 단백질과 칼슘 함량이 많아 서울 가락공판장에서 인기가 최고다.

비금·도초도의 땅은 게르마늄이 풍부하다. 이곳에서 강한 해풍을 받고 자란 시금치는 잎이 옆으로 퍼지고 두꺼운 것이 특징이다. 잘 시들지 않으며, 단맛이 강하고, 섬유질이 풍부하여 개량종보다 비싸게 판매되는 고부가가치 상품이다. 비금·도초도에서 나는 시금치만을 특별히 '섬초'라고 부른다.

과거에는 벼농사와 구황작물을 재배하던 논밭이, 오늘날에는 섬의 토질에 적합한 새로운 작물재배지로 바뀌었다. 이 작물들은 품질이 탁월해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섬 농업이 '자급자족'에서 '시장경제'로 진화·진입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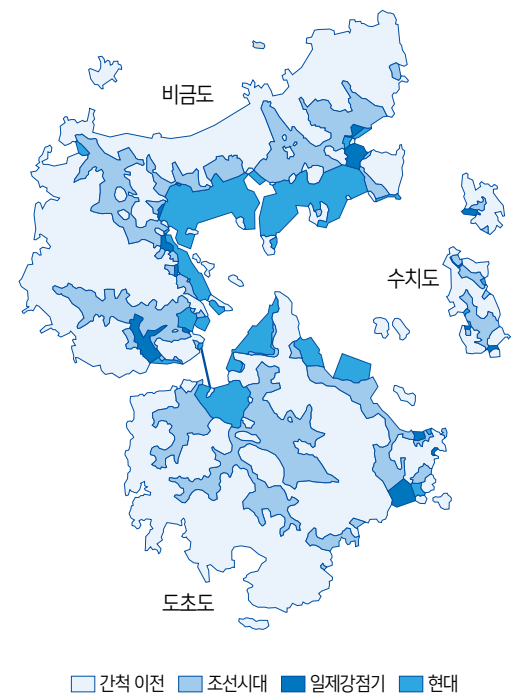
신안 섬 토지수탈과 항쟁의 역사

섬주민들이 피땀으로 일군 땅을 빼앗아간 세력이 있었다. 섬사람들은 오랜 세월 목숨을 건 투쟁으로 땅을 되찾았다. 하의삼도 농지탈환운동, 암태도 소작쟁의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1623년 인조는 왕실의 공주에게 하의도, 상태도, 하태도 3개 섬의 땅(26만㎡)에서 4대 후손까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줬다. 그러나 5대에 이르러어도 세금징수권은 반환되지 않았다. 오히려 당초 인조에게서 받은 땅의 6배나 되는 165만㎡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다. 주민들은 한양까지 올라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도리어 핍박만 받았다. 이때부터 하의삼도 주민들의 300여 년에 걸친 투쟁이 시작되었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고도 수탈은 멈추지 않았고, 농민들의 투쟁도 계속됐다. 1994년에 이르러서야 국회의 특별조치로 소유권이 온전히 반환되었다.

암태도 땅 또한 조선시대 때부터 왕실 세도가들의 사유지로 수탈되었다. 일제시대 들어서는 조선인 지주와 일본인 지주가 암태도 땅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1920년대 들어 지주들은 통상 5할인 소작료를 7~8할까지 올렸다. 암태도 농민들은 1923년 8월 추수를 앞두고 서태석의 주도로 '암태소작인회'를 결성하고 소작료 인하 투쟁을 시작했다. 1년에 걸친 투쟁

비금도와 도초도가 간척으로 농경지를 확보하며 오늘에 이르게 된 과정.



을 통해 소작농들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이 승리는 인근 도초도, 자은도, 지도 등의 섬으로 확산되었다. 암태도 소작쟁의는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항일농민운동이자 이후 전국에서 일어난 소작쟁의의 기폭제로 평가받고 있다. ¹⁰⁰⁴ 출처 <섬을 읽는 15가지 열쇠>(전라남도, 2020) 중 85-121쪽. 원글 작성자 이경아 사진 신병문



‘100년을 바라보는 1004섬 신안’

민선8기 1주년 군정 보고회 열어

신안군은 6월 20일 신안군청 1004회의실에서 민선8기 1주년 군정 주요성과 보고회를 열었다. 신안군 출입기자단, 관계 공무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우량 군수가 주요성과를 직접 보고했다.

보고회는 ‘100년을 바라보는 1004섬 신안’을 주제로 정책 방향, 군정 주요성과, 앞으로 주요 추진사업을 공유했다. 신안 사람들이 섬에 사는 일을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여기도록 하기 위해, 신안군은 △남이 가지 않는 길 △문화·예술이 꽃피는 섬 △사계절 꽃 피고 숲이 울창한 섬 △다양한 정책을 통한 소득 극대화 △소득향상을 위한 지역 자원의 최대 활용이라는 5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신안군은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 1위, 재정자립도 하위권 등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대통령 상, 국무총리상 등 32건의 기관 표창을 수상하고, 갯벌 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 조성 320억 원 등 41건 1,854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했다.

2022~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계획 평가에서 최우수등급(A)에 선정되어 기금 271.8억 원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청년이 돌아오는 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또 전국 최초 ‘햇빛아동수당’을 1인당 연 40만 원씩 지급하는 등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래 100년의 밑거름이 될 ‘1섬 1정원’ 사업은 총 7,075억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었으나, 발로 뛰는 적극 행정을 통해 3,802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또한, 군비 1,695억 원이 투입된 33개소 정원에 읍면별 대표 수종을 심어 사계절 꽃피는 섬 신안에 관광객의 끊임없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1섬 1뮤지엄’ 사업도 순항하고 있다. 신안군은 14개 읍·면에 야나기 유키노리, 안토니 곰리, 마리오 보타, 박은선 작가 등 세계 유수의 예술가가 참여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

립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안군은 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는 1004섬 신안, 누구나 가고 싶고 살고 싶은 1004섬 신안을 만들어 갈 것임을 밝혔다.

신안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152만 평의 압해읍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통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 변경하고, 이 중 9만 평을 농공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다리와 공항 건설은 앞으로 섬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사업들이다. 장산-자라 연도교는 국비 1,615억 원을 투입해 2029년경 준공할 예정이다. 추포-비금 연륙교는 국비 3,395억 원을 투입해 2030년경 준공할 예정이다.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지난 1월말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신의-장산 연도교 건설은 신안 중부권 다이아몬드 제도의 연결을 완성할 사업이다. 신안군은 신의-장산 연도교 건설이 제6차 국도·국지도종합계획(2026~2030)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다하고자 한다.

신안군은 “1004섬 신안이 가지고 있는 햇빛, 바람, 바다는 군민의 희망이 되고, 앞으로 신안 10GW 신재생에너지는 전국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섬 신안의 에너지원이 되며, 섬 문화·예술·정원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고유한 섬 신안의 원천이 될 것이다. 군민의 삶이 변화하고, 꿈과 희망이 현실이 되는 신안 미래 100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정책 소식들

전국 최초, 햇빛연금에 이은 ‘햇빛아동수당’ 지급 신안군은 지난 5월 3일 전국 최초로 신안군 만18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에게 햇빛아동수당 지급 기념식을 열었다. 신안군 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와 공동주관했다.

신안 각 지역 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 8개소는 올해 3월 연합회를 결성했다. 이 연합회를 통해 신안군 만18세 미만인 아동에게 1년에 40만 원(상반기 20, 하반기 20)을 지급하기로 한 것. 혜택을 받는 아동청소년은 모두 1,969명이다. 신안군은 지역 공유자원인 햇빛과 바람을 이용해 기본소득을 확대하고, 이번 지급이 인구소멸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사)신안태양광산업협회 결성, 상호협력하기로 지난 5월 25일 (사)신안태양광산업협회(회장사 (주)탑선)가 발대식을 열었다. 이 협회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신안군 태양광 산업육성 정책에 관련 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태양광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결성됐다. (사)신안태양광산업협회는 9개 발전사(탑선, 비금주민태양광발전, SK E&S, KCH, SMRE, 빛솔라에너지, 탑솔라 등)와 5개 일반회원사(한국수력원자력, 탑인프라 등)로 구성됐다.

신안 해상풍력 민·관·사업자간 상생협약 체결 신안군은 지난 4월 20일 전라남도, 신안군어업인연합회, (사)신안해상풍력발전사협의회, 신안부유식풍력산업협회와 함께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신안군어업인연합회가 제안했고, 이해당사자인 해상풍력 고정식·부유식 각 사업자 대표도 참여했다. 주민 수용성과 피해보상 등에 서로 협력하기로 하여, 신안군이 전국 해상풍력 추진에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안군어업인연합회는 (사)한국수산업경영인 신안군연합회, 새어민회 등 관내 수산업 관련 10개 단체로 구성된 연합회이다. 김장수 회장은 “어업인들과 상생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우리 또한 탄소 중립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다큐ON ‘365일 꽃이 피는 섬’

신안군의 ‘사계절 꽃 피는 섬 정원’ 이야기를 담은 KBS 다큐온 ‘지역의 부활, 365일 꽃이 피는 섬’이 지난 6월 10일 KBS1 TV에서 방영됐다. 47분 분량의 이 다큐는 신안군의 그간 노력을 생생하게 담고 있다. 다음은 다큐의 주요 내용.

1부. 보라색, 지역 부활의 상징이 되다. 2021년 12월, 유엔 세계관광기구(UNWTO)가 신안 퍼플섬(박지·반월도)을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했다. 퍼플섬에는 퍼플교를 중심으로 여름 라벤더, 가을 아스타국화와 버들마편초가 군락을 이루는 보라색 정원이 있다. 노인만 남았던 두 섬이 관광명소가 되고 세계의 주목까지 받은 비결은 무엇일까.

2부. 이야기로 풀어낸다. “섬 할머니의 수선화 사랑” 아름다운 꽃에 이야기를 더해 관광자원을 만든다. 이른바 스토리텔링이다. 작은 섬 선도의 주민 현복순(93세) 할머니가 집 주변에 심은 수선화 꽃밭을 시작으로, 섬 전체가 수선화 정원으로 탈바꿈한다. ‘노란색 기적’이라 불리는 ‘수선화의 섬, 선도’를 찾아가본다.

3부. 색채마케팅 “황무지 돌섬이 맨드라미 꽃동산으로” 맨드라미의 섬, 병풍도의 주된 색은 빨강이다. 빨간 꽃이 피고, 빨간 옷을 입고, 지붕도 빨강계 칠했다. 신안군은 각 섬에 고유한 색으로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른바 ‘색채마케팅’은 지역 활성화에 어떤 효과를 내고 있을까.

4부. 불가능이 가능으로, 가능성이 기적으로 농사짓기도 힘든 섬에 꽃과 나무를 심고, 황무지 ‘돌섬’을 ‘꽃섬’으로 만들어 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무모해 보이는 일, 모두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일”이었다고.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고, 가능성이 ‘기적’이 되게 하는 과정은 일종의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다.



방송 보기



신안갯벌, 2023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신안갯벌이 지난 5월 24일 ‘2023년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세계자연유산 부문 대상에 선정됐다. 조선비즈가 주최하고 조선일보, TV조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상이다. 2011년을 시작으로 13회째를 맞이하여, 각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시대에 맞춰 국민에게 사랑받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발굴한다는 취지다. 신뢰도, 호감도, 만족도 등 7개 항목에 대한 소비자 직접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지난 2021년 7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한국의 갯벌’이 등재되었으며, 신안 등 전국 총 4개 지역의 갯벌이 포함됐다. 이중 85%에 해당하는 면적이 신안갯벌이다. 신안군은 신안갯벌의 세계화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해 2003년부터 18년 동안 수많은 노력을 쏟아부었다. 지금도 세계자연유산으로서 신안갯벌 보전과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자은도의 새 랜드마크, 다목적회관 준공

신안군은 자은도 다목적회관 신축을 마치고 지난 5월 12일 준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다목적회관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특별지원금(주민바람, 신안그린에너지)으로 지급된 국비 17억 원을 포함, 총사업비 50억 원으로 건립됐다. 지상 2층 규모로 소회의실, 대회의실, 세미나실, 체력단련실 등을 갖추고 있다. 신안군은 이 다목적회관이 자은도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면서, 주민들의 소통의 장, 마을공동체의 장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날 준공식 때는 다목적회관 내 230석 규모의 연주홀에서 피아노 연주회가 열렸다. 최



근 추진되고 있는 ‘자은도 피아노의 섬’ 사업을 알리는 첫 공연이기도 했다. 폴란드의 국립쇼팽음악대학을 수석 졸업한 피아니스트 아그니에슈카 프제미크 브리와의 연주, 바이올린의 다카시 하마노, 국내 정상급 테너 최승원과 소프라노의 김아람, 김자영 피아노 연주자가 참여해 열띤 호응을 얻었다.

흑산도에서 통일신라시대 사찰 건물지 확인

흑산도 무심사지 발굴조사에 대한 현장자문위원회가 지난 6월 14일 흑산도 현장에서 열렸다. 무심사지는 상라산 동쪽 기슭에 위치하며, 창건연대와 폐사 시기는 알려져 있지 않다. 현재 삼층석탑과 석등이 남아있고, 지표조사와 기존 발굴조사를 통해 ‘무심사선원(無心寺禪院)’이 새겨진 기와편을 확인했다.

2009년부터 시굴·발굴조사가 수차례 진행됐지만, 구체적인 절의 역할과 성격 등이 규명되지 않았다. 신안군은 2021년부터 (재)불교문화재연구소를 통해 발굴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번 조사 결과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2동, 축대, 석렬 4기 등의 유구를 확인했다. 출토 유물은 인화문 토기편을 비롯해 금동불상 발편, 중국제 도자기편, 연화문 막새편 및 ‘중원갑진년육월조(中元甲辰年六月造)’명(1244년 추정) 막새편 등이다.

옛 문헌에는 중국 사신을 맞이하는 흑산도 관사와 봉수대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무심사지 주변 상라산성, 제사터, 관사터 조사에서는 중국제 동전과 도자기가 다수 발굴됐다. 이를 통해 흑산도가 통일신라부터 고려까지 동아시아 남방항로의 해상무역 거점항으로 이용됐음을 알 수 있다. 신안군은 “발굴조사를 추가로 진행하면, 고대 동아시아 국제무역항으로서 흑산도 위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안군 제1호 민간정원 ‘파인클라우드’ 탄생

지난 6월 7일 암태면 기동리에 ‘파인클라우드 정원’이 문을 열었다. 파인클라우드는 신안군 제1호 민간정원이자 전라남도 제22호 민간정원이다.

5,841㎡ 부지에 파인 정원, 야영장, 유리온실, 파인 카페 등의 편의 시설과 문화공간을 갖추고 있다. 또한 24종의 수목과 초화류를 식재해 계절마다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원 중앙에는 시원하게 쏟아지는 폭포와 분수가 설치되어 있다. 파인클라우드는 ‘애기동백 파마머리 벽화’로 유명한 기동삼거리에서 자은도 1004뮤지엄파크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신안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최용일 파인클라우드 대표는 “40여 년 전 업무차 암태도를 지나면서 이곳에 멋진 정원을 만들어 정착하고 싶다는 소망을 품고 있다가 드디어 꿈을 이뤘다”며 “정원 조성과 민간정원 등록에 도움을 준 신안군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신안군은 파인클라우드를 시작으로 민간정원이 계속 늘어나길 바라며,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성과 큰 초등학생 해외 어학연수 재개

신안군은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초등학생 30명을 선발하여 1개월 일정의 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신안군 어학연수 프로그램은 신안군장학재단 출연금으로 2008년부터 시작됐다. 1인당 750만 원의 경비를 지원받아 총 253명의 학생들이 연수를 다녀왔다.

2023년 초등학생 뉴질랜드 어학연수 프로그램은 한국토익위원회/YBM 주관으로 지필·구술시험을 거쳐 최종 30명을 선발했다. 선발 학생은 여름방학 때 1개월간 뉴질랜드 오클랜드 엘름파크(Elm Park) 스쿨에 다니면서 정규수업을 듣고 현지 홈스테이, 체험학습 등을 하게 된다.

신안군장학재단 기탁 현황

기탁 기간 2023.3.28. ~ 6.19. 총액 3억1천116만 원

지정기탁 해주신 분들

농협목포신안시군지부 100,000,000 목포무안신안축협 30,000,000 신안군수협 30,000,000 신안군조사료경영체협회 20,000,000 왕성레미콘 대표 고경훈 20,000,000 (재)한국기원 10,000,000 맛잇섬영농조합법인 10,000,000 쉬랑쎬2호점 10,000,000 유한회사엘림종합건설 10,000,000 지도 임을순·곽미정 10,000,000 흑산 홍어축제추진위원회 10,000,000 경원세기에어컨 9,000,000 대건냉동이엔씨 9,000,000 무안축산우리가축분퇴비 5,000,000 삼성전자 3호광장점 대표 김세웅 5,000,000 신안군안강망협회 5,000,000 임자면 여성단체협의회 5,000,000 도초 박광윤 2,000,000 도초 오덕문 2,000,000 도초 최상철 2,000,000 도초 한상우 2,000,000 이애문컬렉션 1,000,000

정기후원 해주신 분들

박용철·김원심(도초) 최원상 박종운(임자하나로베이커리) 박성진 고성민 김용수 최영택 강기춘 곽호남 김계형 김도남 김민영 박정배 양국진 장미희 최미 최상도 정승일 최광영 고은경 김대중 김대현 김상희 김은정 김현희 모현경 문지연 박효선 백미숙 장희웅 정승기 정창균 조영학 최미영 김명기 김완수 박부일 박수정 정영운 정은재 박미선

신안 장학기금 기탁하시려면

문의 (재)신안군장학재단 061-240-8777
후원계좌 농협 301-0165-0150-11
(예금주 재단법인 신안군장학재단)



1004섬 신안 예술섬으로 활짝

주요 문화관광 사업들

1004섬 신안의 문화예술과 관광이 한 단계 도약하고 있다. 최근 신안군이 굵직한 규모로 문화와 관광사업을 추진하면서 '1004섬 신안'이 더욱 탄탄한 문화 브랜드가 되어가고 있는 것. 그간 신안은 1섬 1뮤지엄과 1섬 1테마정원이라는 양대 시책을 추진해왔다. 섬마다 특색 있는 꽃과 나무를 심고,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지어 각 섬들을 특화하는 일이다. 그 성과는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 문화예술을 특화한 예술섬 사업이 더해졌다. 오는 10월에 열리는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 자은도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피아노의 섬', 그리고 자산어보와 파시라는 문화역사 자원을 특화하는 'K-관광섬 흑산도'가 그것이다. 세 가지 주요 사업의 진행 상황을 소개한다.



100섬 신안, 예술로 날다

2023 대한민국 문화의 달

올해 10월 20~22일 3일간 신안이 황홀한 문화 예술 축제장이 된다. 매년 정부가 한 곳을 지정해 지원하는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의 올해 개최지가 신안이기 때문. 주요 행사장은 안좌도 퍼플섬, 자은도 1004뮤지엄파크, 자은도 둔장마을미술관 등이 될 예정이다.

신안이 내건 주제는 ‘섬, 대한민국 문화다양성의 보고’ ‘1004섬, 예술로 날다’이다. 섬으로 이뤄진 지자체인 신안에는 육지와 다른 독특한 섬문화가 잘 살아있다. 섬주민들이 자유롭게 어울려 벌이는 즉흥적인 놀이문화인 ‘산다이’가 대표적인 예시다.

극단 갯돌의 홍어장수 마당극.



신안군은 섬의 놀이문화를 현대적 감각으로 되살려 국내외에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생태, 다양성, 섬문화를 기반으로 ‘신안다움’을 공유하는 공연, 전시, 축제, 팸투어, 국제네트워크 등을 펼친다.

지난 4월 신안군은 2023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행사 준비를 하고 있다. 추진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됐다. 추진위원장은 강형기(충북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씨이며, 총감독은 임동창 씨이다. 임동창 감독은 신명의 소리를 끌어내는 것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이다.

1004섬 오케스트라 콘서트.



행사는 크게 예술로, 미래로, 바다로 등 3가지 섹션으로 구성된다. ‘예술로’는 100+4 피아노 오케스트라로 구성되는 무대공연이며, ‘미래로’는 학술행사와 예술섬(뮤지엄) 탐방과 관람, ‘바다로’는 신안 음식의 멋과 맛 탐색이다.

‘대한민국 문화의 달’은 정부가 지원하는 오랜 전통의 문화행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1972년부터 매년 10월을 문화의 달로 지정하고, 공모로 개최지를 정해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해 개최지는 경남 밀양이었다. [1004](#)



신안 만인보전.

주제	주요 행사	행사 내용
예술로	·개막식 ·주제공연 ·주민참여프로그램	- 1004섬 산다이와 100+4 피아노의 만남 - 100+4 피아노 오케스트라 콘서트 - 나도 1004 피아니스트 (관객참여형)
		- 포크산다이 공연, 마당극 ‘홍어장수’
미래로	·학술행사 ·UNWTO BTV ASIA NETWORK (3차 회의)	- 거장 ‘신안에서 예술혼을 심다’ (제임스 터렐의 예술세계와 꿈의 미술관) - 야나기 유키노리 - 안좌도 플로팅뮤지엄
바다로	·신안의 미식	- 1004섬 신안의 식자재 생산지 탐방 - 푸드트럭과 신안 1004 로컬푸드요리 - 신안 맛 여행
부대행사	·피아노섬 버스킹 공연 ·신안 만인보전 ·예술섬 뮤지엄 탐방, 관람	

2023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 추진위원 강형기(충북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장호찬(한국방송통신대 관광학과 교수), 강미희(국제지속가능 관광위원회 아태 총괄이사), 엄남현(홍익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이대형(에이치존 대표), 손재오(극단 갯돌 상임연출), 윤성진(페스티벌그린얼라이언스 대표), 이영민(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겸임교수)

피아노와 신안해변의 만남

자은도 피아노의 섬 프로젝트

아름다운 신안 자연과 피아노 선율을 함께 만끽할 수 있는 ‘자은도 피아노의 섬’ 프로젝트가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되고 있다. 이는 신안군의 예술섬 조성을 위한 양대사업인 ‘1섬 1뮤지엄’ ‘1섬 1테마정원’에 이은 신규 사업이다. ‘피아노의 섬’은 프랑스 북부의 작은 도시 ‘르투케 파리 플라주’의 피아노 축제 ‘레 피아노 플리에 Les Pianos Folies’를 벤치마킹했다. 신안군은 피아노와 자은도 경관이 어우러지는 서정적 효과의 최대치를 기대하고 있다.

자은도는 2019년 천사대교로 연륙이 되기 전부터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섬이었다. 해변이 특히 아름다운 자은도에는 해수욕장만도 9곳이다. 천사대교 개통 이후에는 1004뮤지엄파크, 씨원리조트&라마다호텔 등의 문화관광 기반 시설이 확충돼, 명실상부 신안 중부권의 대표 관광지가 됐다. 자은도 둔장해변에는 현대미술을 소재로 한 복합문화공간 ‘인피니트뮤지엄’ 건립도 추진되고 있다. 신안 섬문화를 이야기할 때 ‘산다이’를 빼놓을

수 없다. 종합예술인 ‘산다이’는 광범위한 음악을 다루면서 섬사람들의 희노애락을 담고 있다. 피아노의 섬 프로젝트도 문화다양성의 측면에서 섬 산다이의 연장선에 있다. 피아노의 섬 프로젝트는 피아노를 매개로 삼아 신안 문화예술을 관광자원화 한다. 또한 가까운 곳에서 정통 클래식 공연을 누리기 어려웠던 신안 청소년 등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한다.

신안군은 애초 5월 중 2주간을 ‘제1회 피아노의 섬 페스티벌’ 주간으로 정하고, 국내외 정상급 피아니스트를 초청한 리사이틀 연주와 성악, 기악 등 공연을 선보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10월에 열릴 ‘2023 문화의 달 행사’ 때 함께 개

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해, 페스티벌을 10월로 연기했다.

대신 지난 5월 12일 자은도 다목적회관 준공식 때 ‘피아노의 섬’을 알리는 첫 공연을 선보였다. 자은면 다목적회관은 230석 규모의 연주홀을 갖추고 있어, 앞으로 피아노의 섬 프로젝트에서 활용도가 클 것으로 보인다.

가을에 열릴 피아노 페스티벌의 주 무대는 자은도 일원이다. 라마다호텔 야외공원, 1004뮤지엄파크 야외정원, 자은면 다목적회관, 옛 두봉초등학교 터 등이다. 신안군은 또한 옛 두봉초등학교 터에 피아노 박물관을 건립하고 있다. *1004*

1 자은도 해변과 피아노. 2 무한의 다리. 3 다목적회관 준공식 때 피아노 연주회. 4 자은도의 명산 두봉산.

5 둔장해변. 6 둔장마을미술관.



공항에 이어 K-관광섬까지

K-관광섬 흑산도 프로젝트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가 ‘K-관광섬’ 사업 대상지 5개 섬을 발표했다. 신안 흑산도를 비롯해 여수 거문도, 군산 말도·명도·방축도, 웅진 백령도, 울릉군 울릉도가 선정됐다. 앞으로 정부는 섬별로 4년 동안 100억 원(국비 50억, 지방비 50억) 안팎의 예산을 투입해, 한국의 대표 섬 관광명소로 육성하게 된다.

흑산도에는 2026년까지 총사업비 12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로써 흑산도는 지난 1월 흑산공항 건설사업 심의 통과에 이은 겹경사를 맞았다. K-관광섬 사업이 마무리되고 흑산공


항이 완공되면 흑산도 관광산업이 날개를 달 것으로 예상된다.

K-관광섬 육성사업은 정부가 올해 처음 추진하는 정책이다. “휴양과 체험을 중시하는 여행 추세에 맞춰 저밀도 청정 관광지인 섬에 관광과 K-컬처를 융합하고 지역주민이 함께해 매력적인 섬으로 특화한다”는 것.

이 사업은 지자체, 지역주민, 관광사업자, 활동가 등 민과 관이 협력해 추진한다. 또한 관광자원과 콘텐츠 개발, 관광편의와 서비스 기반 강

화, 섬 정체성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구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산 지원뿐 아니라, 기본계획 수립부터 사업 마무리 단계까지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사업 공모 때 신안군이 제시한 ‘K-관광섬 흑산도’의 주제는 ‘자산어보 흑산도’이다. 자산어보는 조선 후기의 대학자 정약전이 흑산도에서 유배생활을 하면서 마을어부 창대와 함께 저술한 해양어류도감이다. 오늘날 흑산도의 생태문화자원을 대표하는 상징이기도 하다.

신안군은 4개의 테마 아래 총 14개 세부사업을 수립했다. 4개 테마는 자산어보 테마마을 조성, 흑산도 파시 관광자원화, 관광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기반 강화, 주민 소득향상 및 역량강화이다. 정약전이 살았던 사리마을 일대에 자산어보 테마마을을 조성하고, 흑산항 앞 광장에 과거 번영했던 파시(바다 위 생선시장)를 문화체험 상품으로 구현한다. 그리고 관광편의 시설을 두루 개선하고, 주민들의 소득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등이 골자다. 

1 사리마을 유배문화공원. 2 사리마을 전경. 3 사리분교의 활용 조감도. 4 예리항 광장.



세부 사업 계획

자산어보 테마마을 조성

- 유희시설 활용 관광자원화
- 사리분교, 유배문화공원 등
- 자산어보 체험, 가족캠프 등
-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

흑산도 파시 관광자원화

- 1960년대까지 번성했던 흑산도 파시문화 관광상품화
- 유희시설, 상가골목 활용 관광자원화

관광콘텐츠 개발 & 서비스 기반 강화

- 즐길거리와 편의시설 확충
- 위생업소 환경개선, 관광객 만족도 증가 프로그램
- 해양레포츠 기반 조성, 캠핑 등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

주민 소득향상 & 역량강화

- 주민 소득연계 프로그램 개발
- 향토음식 개발 및 경연대회
- 마을기업 활성화 프로그램
- 주민 역량강화 교육

‘더 원 앤 온리’ 전략의 결실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박우량 군수입니다.

청무화과가 익어가는 계절에 내리쬐는 태양을 땡벌, 혹은 땡약벌이라고도 합니다. 벌써 여름이 왔습니다. 내리쬐는 태양보다 따끈따끈한 세 가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흑산도를 ‘가고 싶은 K-관광섬’으로 선정했습니다. 신안군은 앞으로 4년 동안 120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 예산으로 관광자원과 콘텐츠 개발, 관광편의·서비스 기반 강화, 섬 정체성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흑산도를 중심으로 신안군 전체에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추진해 갈 것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신안갯벌이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유력 언론사의 엄격한 심사, 그리고 소비자 투표라는 관문까지 통과해 얻은 영예입니다. 신안갯벌이 고유의 이미지를 형성했고 그것이 하나의 브랜드로서 자리 잡아 국민에게 사랑받고,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우뚝 선 것입니다.

암태면 추포도에 음식관광사업 476억 원이 확정되어 2027년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식문화체험복합센터 건립, 푸드비치스토어 설치,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이 포함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앞서 말씀 드린 세 가지 소식은 민선8기 초부터 노력해 온 The One & Only(더 원 앤 온리) 전략의 결실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원 앤 온리’를 쉽게 설명하면 ‘신안만이 가진, 신안 고유의’ 자원으로 우리 군민들이 향후 100년 동안 먹고 살 기반을 만들어가겠다는 군정목포입니다.

신안군민들의 열정과 지혜로 이제는 신안군이 미래 성장동력, 경제적 기회 땅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긍심’을 가져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1004섬 신안의 고유한 가치에 추가 노력이 있어야 잠재 가치가 현실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안군은 문화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1섬 1뮤지엄’과 ‘사계절 꽃피는 섬 정원’ 같은 사업을 10여 년 전부터 추진해왔습니다.

이 같은 ‘예술 섬’ 사업의 연장선에서 이번에 신안군은 ‘피아노 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를 오는 10월 자은도 1004뮤지엄파크 일원에서 열게 됩니다.

100+4대의 피아노가 연주되는 사상 초유의 축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는 정부가 지원해 1년에 한 번, 한 지역을 중심으로 3일간 열리는, 문화·학술·축제·교류가 결합된 국제적인 문화행사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신안군민 여러분,

신안의 고유 자원과 세계적 수준의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접목하는 일은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문화적인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신안군이 우리나라 최고의 ‘섬 지자체’로서 성장해 가는 과정이며, 이 모든 것은 군민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보태고 성원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신안군민 여러분,
활기찬 여름, 하시는 일도 건강도 잘 챙기셔서 함께 희망을 키우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안군수 박우량 올림

